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윤재웅  
동국대 교수·문학평론가

지난달 26일 미당 서정주 탄생 100주년 기념 시낭송 공연이 있었다. 300석 규모의 동국대학교 이해랑 예술극장에 500명 가까이 모였었다.

관객 대부분은 시가 좋아 스스로 찾아 온 중년의 문화 향유자들이다. 이들은 이날 시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는 경험을 했다. 시가 실시간 소리로 살아 자기 몸매 다가오는 경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긴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연극배우, 가수, 시낭송가들은 시의 생명을 매순간 새로 탄생시키고 있었다.

낭송을 마치고 객석에 앉아 있던 이시영 시인이 배우들의 낭송에 감탄사를 연

## 문화 융성의 참뜻과 길

“연극 배우들이 시를 낭송하니 확실하 또록또록 들린다. 시인도 독자를 위해 더 노력해야겠네~!”

낭송의 새로운 모형을 보여준 경우는 시낭송가들. ‘국화 옆에서’가 독송, 운송, 합송으로 변주되면서 새로운 콘텐트로 태어나는 순간, 객석 전체에 압도적인 감동이 일었다.

‘신부’를 전통음악으로 작곡하여 초연을 한 주인공은 박정욱 명창. 소리꾼 장사의 역시 미당의 ‘저무는 황혼’을 애절한 가락으로 불러 열화와 같은 호응을 얻었다.

명사들의 인터뷰 장면이 영상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연극배우 손숙 선생의 빼어난 말. “요즘 문화 융성, 문화 융성 하는데. 그제 별건가. 삶 속에 문화를 들이는데. 가령 일상에서 시를 자주 낭송하는 것. 우리를 삶 속에, 가슴 속에, 정서 속에 문화나 예술이 축적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이 한결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날 공연은 문화 융성의 체험현장이었다.

공연 이틀 전, 대통령은 한국메세나협

회 회원 기업인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문화 융성을 위한 기업 지원을 독려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기업으로 하여금 문화의 발흥을 도울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화란 근본적으로 지원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논어 ‘옹아편’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 하다”는 대목이 있다. “즐기는 것(樂之者)”은 최상의 공부 방법이자 높디높은 문화 향유의 기쁨과 관습을 뜻한다.

스스로 좋아하는 나머지 삶의 일부로 만들고 싶은 기호와 취향. 좋은 것을 좋아 말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 말하는 풍도. 이런 문화가 풍성해야 진정한 문화 융성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즐긴다는 건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날 공연 콘텐츠를 채워준 출연자들에게 그 답이 있다. 이들은 흔쾌히 재능 기부를 했으며 관객들은 고품격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다. 출연진들 모두 미담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가능한 일이었다. 시인, 배우, 가수, 낭송가들의 가슴에 미담의 시는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

어서 언제든 꺼내어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다.

고급문화를 사랑하는 진정한 애호가의 정신을 관객들도 이심전심 공감하게 된 점은 이날 공연의 또 다른 수확이다.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도 이런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커지게 마련이다. 수도권과 지방,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문화 격차 해소도 중요하고 특정한 날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 다양한 관람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콘텐츠다. 관객이 보고 싶어 하는 걸 제공하지 못하면 전시행정이 되기 십상인 게 정부 정책이다. 고품격 문화에 대한 장려, 그리고 이를 스스로 즐기는 이들을 위한 지원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 융성의 지혜로운 방책이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 ‘나의 소원’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 社說

### 한빛원전 노후관 ‘뺨질’로 안전 위협하다니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공 한빛원전 3~4호기의 증기발생기 관막을 비울을 높여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증기발생기의 8214개 세관 중 결함(균열·파손)이 생길 경우 8%, 즉 650여 개까지는 관을 막고 사용하던 것에서 18%까지 상향하기 위해 지난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가를 요청했다는데 안전의 한계를 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세관 파손은 곧바로 방사성 물질 외부 유출로 이어지고 그 수가 많으면 냉각재 고갈에 따른 노심 용융이나 다량의 방사성 물질 유출로 인해 큰 재앙으로 변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관막을 허용률이 넘으면 가동을 즉각 멈추는 게 정상적인 조치다.

울진의 한울 3~4호기처럼 관막을 허용률을 높였지만 세관 결함이 잇따라 결국 가동을 멈춘 전례가 있는데도 또다시 시도하려는 한수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3~4호기 증기발생기는 미국 등 원전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사용을 중단한 인코넬 600이며, 그린피스와 원자력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제기하고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제품이란 점에서 재고의 가치가 없다.

8%라는 허용률도 분명 안전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수원은 이 수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허용률 상향 신청시기를 저울질하다 실현될 하루 전인 지난 17일 기습적으로 요청한 것도 결코 뒤통스런 못함을 자인한 셈이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은 불을 보듯 뉘었다.

원전 운영의 기본 원칙은 안전이다. 전문가들은 관막을 허용률을 높여 증기발생기에 부담을 주면 세관이 동시에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수원의 자진 철회와 방법이 없다.

### 잇단 자녀 살해, 그릇된 우리 사회의 비극

우울증, 가정 불화 등으로 엄마가 스스로 낳은 아이를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편협적 인식에다 생명 경시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4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A(39·여)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30분께 장성군 부모의 집 옥실 옥조에 아들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살·4살 딸과 숨진 아들을 키우던 A씨는 지난 9월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기를 자신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나주에선 B(33·여)씨가 자신의 집에서 생후 10개월인 딸을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남편이 가정에서 소홀히 해 딸을 키우는 현실이 원망스러웠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2월에는 광주시 광산구와 북

구, 보성에서 신병 비관과 가정 불화로 어머니와 자녀가 동반 자살하는 등 최근 2개월 사이 5건이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원인은 그릇된 모성이 문제지만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탓도 크다. 이들 사건의 발단이 생활고와 주변의 무관심·냉대 등에서 비롯됐다고 볼 때 사회 정책적 방편이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부모가 자신의 고통을 몰려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것은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된다.

사회 구성의 기초인 가정 이처럼 윤리적으로 해체돼 간단면 사회 전체의 몰락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인 생명의 존엄성을 환기시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보내야 할 것이다.

## 의료칼럼

###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을 기대하며



김수완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치의학연구원의 설립 법안(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법 개정안)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부처, 정당, 여론을 대상으로 한 다차원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치과의사회, 치의학계, 치의료 산업계가 연합체를 구성해 국회정책토론회, 포럼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설립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한국치의학연구원은 치의학 관련 원천 기술과 제품 개발을 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국가 신성장 동력을 산출해 국부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되면 미래창조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치과의료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에 역점을 둔 로드맵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치과의료기기와 재료 산업 등의 발전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운영해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치과의료기기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0년 545억불이며, 연평균 5.15%의 성장률로 규모가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치과의료산업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치과의료기술(치과임플란트, 약 교정 수술, 3차원 영상분석) 및 제품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등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다. 특히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역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치의학분야 연구개발비는 보건으로 연구개발비 중 2.3%로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어 치의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식 변화와 투자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만성 구강질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의 구강상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불평등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구강의료복지 향상을 총체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해 임상 치의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을 개발, 값비싼 치과진료의 문턱을 낮춰 국민 모두가 평등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따른 파급효과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연구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 파급효과는 2370억원, 연간 고용효과는 1360여명,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진료서비스는 부수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더욱이 한국치의학연구원을 비수도권인 광주지역에 유치할 경우, 치의

학 관련 각종 인증기관 및 민·관연구소, 관련 기업들의 동반 유치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의 거대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현재의 의료관광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광주시의 정책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한국치의학연구원의 기대 효과는 치과 의료정책개발 및 치과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치과 의료분야의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개발, 공공지원 사업 및 선진 구강정책 개발을 담당할 국가 치의학 거점 연구원으로서의 기능, 국민 구강보건증진을 위한 국가지원의 선도적 역할, 양질의 구강보건으로 공급에 있다.

광주시는 현재 치과관련 인프라와 축적된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미래형 치과산업 벨트구축에 대한 투자의지가 반영된 로드맵을 구축했고, 우수한 치과산업체 육성과 치과산업단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치과산업 육성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광주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는 미래 광주의 먹거리인 한국치의학연구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기고

### 생태환경·야생동물 보호 우리 모두 함께 해야



정병배  
광주시 민생사법경찰단장

양식 문화를 생각하면 울 봄에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홍역을 치르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대학을 비롯한 국제공동연구팀은 “철새가 V자 대형을 이루면서 힘이 가장 많이 드는 맨 앞자리는 한 마리가 계속 리드를 하는 게 아니라 교대를 하는 방식으로 전체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철새는 서로 공존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 날갯짓을 주고받으며 생존해 나가고 있다. 즉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철새의 사례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어 새삼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서로 공존하며 살아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야생동물은 생태계를 안정화 시키고 상위 소비자의 포식활동에 의해 하위 동물들의 개체 수가 조절되고, 식물의 꽃가루나 종자를 옮기는 기능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생태환경의 보호와 위협에 처한 동물들의 보호를 위해 국제자연보호연맹을 설립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면서 세계야생기금(World Wildlife

Fund)를 만들어 야생동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46개국 대표와 11개 유엔기구에서 참여한 영국 랭캐스터 국제회의에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런던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을 금지하기 위해 2005년도에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한 결과 야생동물의 밀렵 밀거래는 2008년 819건을 최고로 2013년 366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다.

이처럼 불법 밀렵 밀거래행위는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밀렵이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우리 주변에서 뱀, 오소리,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속설 때문이 아닌가 싶다.

최근 들어서는 GPS를 장착한 사냥개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밀렵을 하는 등 밀렵행위가 보다 전문화·다양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판매망 또한 점조직 형태로는 밀거래 이루어지다 보니, 적발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은 평균 10시간

이상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방치된 데다, 야생동물을 먹게 되면 병원균에 감염될 위험이 매우 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신용으로 먹다간 오히려 몸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동절기 야생동물밀렵 불법행위 근절기간으로 정하고 관련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기획수사 활동을 하는 한편,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함께 무등산국립공원에 설치된 댕, 울무와 장애 등 불법업구 수거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들 중 울무는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매듭이 없고 색깔까지 나무색과 같아서 발견 또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은밀하고 정교하게 자행되는 야생동물 밀렵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지 사정에 밝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감시와 신고가 절실하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온전한 생태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과 야생동물에 대한 지킴이를 자처하면서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야생동물 보호에 앞장서 실천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 無等鼓

‘난다 긴다 하는 사람’도 한순간에 ‘하군이 신세’가 될 수 있다.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은 ‘능력이 남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을 가리킨다. ‘하군이 신세’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와 비슷한 뜻이다. (‘고스톱’에서 4광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깨져 버렸거나 했을 때 그런 표현을 쓴다)

한데 이 말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옛날 영암 지역에 군수와 가깝게 지냈던 하군(何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친구는 마치 자기가 군수인 양 세도를 부렸다. 하지만 그 군수가 임망하자 하

‘개’가 나오나 거기서 거거리는 데에서 유래했다.

도·개·걸·울·모는 각각 돼지·개·양·소·말을 상징한다. 웃놀이에서 패에 따라 말을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각기 다른 것은 이들 동물의 크기나 빠르기

와 관련이 있다. ‘도’가 돼지인 것은 돼지의 사투리가 ‘물’이나 ‘도야지’인 데서 짐작할 수 있다. ‘개’는 지금도 개(犬). ‘갈’은 양(羊)을 뜻하는 한자 ‘갈’(羊+曷)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울’은 소(牛)를 뜻하는 방언 ‘슈’나 ‘웃’이 변한 말이다. ‘모’는 말(馬)의 사투리인 ‘물’에서 ‘르’이 탈락한 형태다.

‘웃놀이’라는 명칭은 나무 막대기 네 개를 가지고 노는 놀이이므로, 냇을 뜻하는 ‘울’에 ‘놀이’가 합쳐진 것이다. 웃놀이를 사(擲) 또는 적사(擲)라 하는데 여기에서의 ‘사(擲) 역시 나무 막대기 네 개를 뜻한다.

웃놀이는 설에는 주로 가족끼리 하지만 대보름날엔 마을 전체나 문중이 참여한다. 널따란 마당에 명석을 깔고 웃을 던지며 풍년을 기원한다.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다. /이희재 논설교

<b>光州日報</b>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申港樂</b> 편집국장 <b>程厚植</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b>광고문의 062-227-9600</b>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9500) (F A X 227-9500)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